

또 다시 기적 이야기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성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다. 예수 이야기가 허구든(Doherty, *The Jesus Puzzle*; Freke and Gandy, *The Jesus Mysteries*) 또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든, 혹은 기독교는 하느님/하나님을 믿고 말하든(대중종교) 간에,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이야기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 이야기는 기독교 담화에서 빠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성서는 경전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성서의 언어는 그 자체로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에 매달려 있는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것이 가리키는 사건/경험을 통해 뜻하는 의미/가치를 전달할 때 그 생명이 되살아 난다.
- 교회의 실질적 기능으로서 성경공부는 교리와 신앙고백을 통해 기존 신학을 되풀이 함에 그 의의가 있지 않고, 기독교 전통—좋은 의미, 정체성(identity) 문제—속에서 내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함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우리가 하는 성서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며(안티 기독교인들 입장), 단지 부산물일 뿐이다. 아울러 교회 내의 기독교인의 권력 남용이 불러 온 이단 문제(안타깝게도, 기존 기독교인들 입장) 또한 원초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복음서 속의 기적과 병 고침 이야기들이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유일무이(唯一無二)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통해 성서는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 사건만큼이나 예수의 초월성, 예외성을 주장한다면, 한 번으로 족하다. 계속 이야기를 바꿔가며 그 하나의 사실을 반복해 말할 이유가 있을까? 또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똑 같은 사건이 문자적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바다를 건넌

예수가 바다/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맞물려 있다.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4:35-41; 6:45-52)은 두 번의 떡을 떼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며(6:30-44; 8:1-10), 그 중간에 귀신축출과 병 고침(5:1-43; 6:53-56), 예수의 배척 당함(6:1-5; 7:1-23), 귀신축출과 병 고침(7:24-37)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수의 배척당함이 풍랑과 잔치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왜 예수는 배척 당해야만 했을까?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자 제자들과 마가복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고 풀어야 하는 숙제였다.

마가복음에서 풍랑은 물론 은유적 표현(metaphor)으로 두 개의 문화, 이데올로기, 가치관 사이에서 이는 불협화음, 적대감, 위협을 암시한다. 갈릴리 바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호수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굳이 바다로 부르는 이유는 바다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염두에 둔 때문이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다는 종종 최고 위치의 신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된다. 우가릿트 신화에서 바알은 얄(바다)을 제압하고, 바벨론 신화에서 마дук(Marduk)이 바다로 상징된 티아마트(Tiamat)를 물리침으로 천지창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들과 공동 문화권을 형성한 유대인들의 히브리성서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고, 따라서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창 1:2).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역시 바다를 다스리는 행위며(출애굽 14-15 장; 시 77:16-20; 106:9), 시편 104:9에서는 바다에 경계를 정하여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기 못하도록 한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홍수는 농민들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었다. 일년 농사를

순식간에 망쳐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자연재해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들의 세계 속에서도 바다로 비유되는 신은 가장 암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바다에서 이는 풍랑은 경계선에서 오는 긴장, 위험을 뜻한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유대인 지역, 동편으로는 이방인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바다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함은 기존의 유대 가치관에서 볼 때 부정한 땅에 들어감이고, 이방인들과 어울림을 의미한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운 질서(틀)를 깨는 행위다. 당연히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와 함께 감시, 비난이 따르고, 이방인들로부터는 도전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 은유적 표현으로 풍랑이 인다.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무서워 어쩔 줄 몰라 예수를 깨운다. 예수가 추궁한다.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4:40) 무슨 믿음을 말할까? 막 11:22에서는 “하느님의 믿음”을 말하고,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1:14)을 전파한다. 하느님의 믿음이란 로마의 믿음—지배체제의 믿음—과 대치,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치관, 이데올로기(이념), 철학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이는 풍랑이 지배체제의 세력이 보내는 경고, 압력, 핍박으로 볼 때, 하느님의 믿음이란 이런 지배이데올로기의 핍박과 도전을 이기는 창조적 힘으로 작용한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딸 이야기에서도 믿음이 강조되는데,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5:34)고 하며, 회당장에게는 “믿기만 하라”(5:36)고 명한다. 이렇게 믿음이 이 장(章)을 이해하는 열쇠고 마가복음 신학의 핵심이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언급할 때, 동사 피스튜오(πιστεύω, 14 번)와 명사 피스티스(πίστις, 5 번) 모두 하느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 살아내기를 촉구한다.

군대 귀신

예수는 바다를 건너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Δεκάπολις, ten cities)의 하나인 거라신으로 향한다. 지명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 도시가 요단강 동편 이방인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주목할 것은 더러운 영에 매인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그는 무덤 주위를 맴돌며 스스로를 핍박한다. 자해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 다닌다. 그 안에 더러운 영,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 문화권 사람 역시 로마제국 하에서 억눌려 생활하고 있음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방 땅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는 귀신들린 자와 맞서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된다. 여기 서술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5:4, ἰσχύω)는 표현은 예수가 힘센 자를 제압한 비유를 연상케 하고(3:27, ἰσχυρός)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한 말,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을 되새긴다(1:7, ἰσχυρότερός).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힘겨루기—그 언어가 여전히 신약성서에도 살아 있다. ‘하느님 나라’의 나라(바실레이아, βασιλεία, kingdom, rule)라는 말이 증거하듯, 말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뜻(이해)이 바뀔 뿐이다. 예수는 더러운 귀신(영) 들린 사람을 돼지에게 보낸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 지역을 말하지만, 이 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곧 로마 군대, 제국주의와 지배체제를 상징한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 놓였으며,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제국의 열 번째 군단(Legion)은 (멧)돼지 형상을 군대 기장의 상징으로 썼는데, 이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서 만일에 있을 소요와 반란에 대비해 경찰 임무를 수행했다. 특별히 헤롯 대왕 사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으킨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 2000여명의 갈릴리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가 하면(Antiquities, XVII, 295), 유대 전쟁(66-73 C.E.)과 바코흐바 전쟁(132-135 C.E.)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초토화 했다. 퇴역군인들과 로마인들이 요단강 동편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군대 귀신들린 사람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이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베스파시안은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천 여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나갔다. War, IV, ix, 1 (486-489)

돼지는 다른 짐승과 달리 떼로 다니지 않는다. 떼로 모여 있다는 것은 군대가 사열함과 같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대적하여 나오는 것이나(ὕπαντάω, 5:2), 예수가 군대 귀신을 떠나게 허락함(ἐπιτρέπω, 해산시킴)과 돼지 떼가 비탈로 돌격함도(ὀρμάω, 5:13), 모두 싸우러 출정하는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돼지 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은 출애굽 상황을 재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제국을 탈출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자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혹은 갈대 숲)의 물을 쓸어 모아 바로 군대를 수장시킨다(출 14:26-31; 15:4-5). 이렇게 예수의 귀신 축출은 지배체제의 이념과의 싸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로마체제 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이 출애굽 상황을 재연(再演)함으로 나타난다.

혈루증 여인과 소녀의 소생

마가복음의 대표적 문학기법인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 막 5:21-43에 잘 드러나 있다. 가운데 위치한 혈루증 여인의 행동(5:25-34)과 믿음은 이를 둘러싼 본래 이야기(5:21-24; 35-43)—회당장의 딸 이야기—를 해석하는 열쇠다.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 여인의 믿음인데, 그 내용은?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의 딸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둘 다 여자들 이야기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이었다. 둘 다 열 둘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한 사람은 12년 간 병고에 시달리고, 다른 하나는 12살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여인이 12년간 피를 흘렸다면, 소녀는 이제 비로소 초경의 나이 12살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열 둘(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열 두 제자를 부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열 두 부족을 의미한다고 본다. 한 사람의 운명을 말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묘사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창 9:4-6). 열 두 해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 그 만큼 생명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12살 소녀는 죽어 간다. 급박한 상황이다.

여인과 소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처한 상황이 여인은 험벗고 가난한 반면, 소녀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회당장의 딸이다. 어린 소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는 무리다.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에서도 회당장—그리고 그 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예수 앞에 온다. 겸손하면서도 떳떳한 자세다. 그러나 여인은 군중들 틈에 숨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께 접근한다.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다가와 손을 대는 것도 금기사항이지만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라면 더욱 정결법 문제가 확대된다. 예수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는다(5:41). 당연히 예수는 부정함에 전염되어 부정하게 되어야 마땅하다. 결과는 예수의 성스러움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케 한다. 이것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고 회당장에게 또한 요구되었다.

예수가 묻는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사람들이 많아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하냐고 오히려 예수를 힐난한다(5:31). 예수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낀다. 여기서 능력(δύναμις)이란 성령의 힘을 뜻하는 말로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임한 그 신령(Spirit, 1:10)의 나타남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신령은 하느님의 영이고, 그 영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 훈련시키고, 그 영에 이끌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한다. 바로 그 영, 그 신학, 그 가치관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다. 예수의 옷깃을 만지면서 예수의 영이 여인 속에 내면화되는 순간이다. 여인의 믿음이란 하느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이 여인을 지배체제의 억압으로부터—병고로부터—놓임을 가져올 것이란 믿음이고, 그 믿음 대로 여인은 고침을 받는다. 풍랑을 잔잔케 하듯 자신을 옥죄는 세파를 이긴 창조적 믿음 행위다.

기존 체제가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안에서 성(거룩함)과 속(부정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지배체제의 이념을 공고화 할 때,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여인의 믿음이다. 경계선을 허무는 상생의 신학이다.

성과 속,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내부인과 외부인은 모두 상대적 개념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배자임과 동시에 피지배자다. 가정에서는 지배자 위치에 있지만, 사회적으로 피지배자 위치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독자들은/우리는 혈투증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편으로 주인공 위치에서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 제자나 회당장의 위치에서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혹은 주변 군중들처럼 구경꾼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군대 귀신 이야기에 ‘간구하다’(παρακαλέω)는 말이 네 번 나온다. 군대 귀신이 자기를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고(5:10), 차라리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한다(5:12). 지배 점령 지역을 떠나길 거부하는 행위다. 그런가 하면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가 그 지방에서 떠나길 간구한다(5:17). 군대 귀신으로부터 놓임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따르길 간구한다(5:18). 간구한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다른 반응을 본다. 지배 세력 사람들은 체제유지를 원한다. 돼지 떼에 들어간다 함은 자기들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자신이 점령한 땅을 떠남과는 다르다. 지배체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일이 불편하다. 예수를 따르지 못할 형편이라면, 예수가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방관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길 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예수의 신학을 살아내도록 명한다. 반드시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와 함께 생활하는 특별한 상황 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기 보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모두가 다 예수의 한 일을 보았지만, 모두가 예수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는 않았다. 가진 것을 내놓기가 싫기 때문이고, 예수와 함께 하기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믿음을 본 받는 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다.

생각해 보기

1. ‘간구하다’로 본 세 가지 유형을 교회 내에 도입해 생각해 보자. 나는 어디에 속할까?
2. 군대 귀신들린 사람의 행동은 한 마디로 자해(自害)다. 신앙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경우는?